

송은범, 신무기로 4.1이닝 1실점...“이젠 감 잡았다”

핫플레이어

시범경기 두산전 슬러브·체인지업 위력
땀의 효과...“캠프서 하루 200개 투구”

“5회까지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.”
한화 김성근 감독은 10일 대전한화생명이
글스파크에서 열린 '2016 타이어뱅크 KBO리
그 시범경기' 두산전이 끝난 뒤 선발 송은범의
투구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. 이날
송은범은 4.1이닝 동안 2안타 1볼넷 2탈삼진
1실점으로 호투했다. 아직은 한 차례 등판일
뿐이기에 좀더 지켜봐야겠지만, 올 시즌 그에
대한 기대와 희망을 읽을 수 있는 말이다.

●안정적 피칭, 4.1이닝 2안타 1볼넷 1실점 역투

송은범은 3회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결과를
냈다. 1회 선두타자 정수빈을 삼진으로 돌려
세우며 깔끔하게 출발한 뒤 2회까지 삼자범퇴
로 처리했다. 1회 투구수 14개 중 변화구 8개,
2회 투구수 8개 중 변화구 4개. 평소보다 변화
구 구사비율이 높았다. 3회 선두타자 박세혁
과 이우성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했
지만, 이후 5회 1사까지 무안타로 막아냈다.
역시 변화구 비율이 높았다. 변화구는 커브,
슬라이더, 체인지업으로 구성됐다.

송은범은 경기 후 “날씨가 추워 볼이 되더라
도 빨리 빨리 던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좋았다.”
라며 웃었다. 이날 최고 구속은 146km, 쌀쌀

구종	1회	2회	3회	4회	5회	합계	최고구속	최저구속
직구	6	4	7	2	7	26	146km	140km
커브	1	1	3	3	2	10	123km	113km
슬라이더	4	1	3	3	0	11	137km	123km
체인지업	3	2	3	1	3	12	128km	119km
합계	14	8	16	9	12	59	146km	113km

한 날씨와 현 시점에선 팬들은 구속이다. 그러
나 그는 “구속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”며 올 시
즌 신무기로 선보일 슬러브와 체인지업을 테
스트했다고 밝혔다.

●‘니시구치 효과’ 신무기 슬러브와 체인지업

한화 전력분석팀 자료를 보면 커브 10개, 슬
라이더 11개였다. 커브를 주무기로 삼아왔던
송은범은 “사실 커브는 1개만 던졌다. 나머지
는 다 슬러브였다”며 “슬러브가 끝에서 빠르
게 변화해 시즌 때 커브를 버리고 슬러브를 사
용할지, 아니면 커브하고 함께 사용할지 고민
이다”고 덧붙였다. 이날 가장 심혈을 기울인
것은 체인지업이었다. 그는 “1회에는 직구를
던질 때와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 스윙이 달랐
는데, 2회부터 비슷해진 것 같았다”며 만족해
했다.

한화는 일본 오카나와 스프링캠프 때(2월
23~3월 3일) 일본프로야구에서 21년(1995~
2015년)간 활약하며 182승을 올린 니시구치
후미야를 인스트럭터로 영입했다. 송은범은
“슬러브와 체인지업 그림을 니시구치 인스트

럭터에게 배웠는데, 종전에 내가 던지던 그림
과 달랐다.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
다”고 설명했다.

●올 시즌 마운드의 키플레이어

송은범은 지난해 FA(프리에이전트)로 4년
34억원의 조건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. 그러
나 지난해 33경기(선발 14경기)에 등판해 2승
9패1홀드4세이브, 방어율 7.04로 기대에 미치
지 못했다. 그래서 그는 결혼을 앞두고도 지난
해 말 일본 고치 마무리훈련과 미야자키 교육
리그까지 참가해 땀을 흘렸다.

땀의 효과가 있었을까. 이날 덕아웃에서 이
재우는 송은범에게 “SK 때로 돌아간 것 같다”
며 칭찬했다. 그러나 송은범은 “아직은 아닌
것 같다”며 웃더니 “오카나와 캠프 때 하루
200개 이상 투구를 3~4차례 하고 마지막 귀
국하는 날 피칭으로 확실한 감을 잡은 것 같
다. 남은 시범경기에서 체인지업을 확실히 내
것으로 만들고, 직구를 던질 때와 팔 스윙이
갈수록 신경을 더 쓰겠다”고 말했다.

대전 | 이재국 기자 keystone@donga.com



한화는 선발진이 미치수로 꼽히는 팀이다. 송은범의 부활은 올해 한화 마운드의 열쇠인데, 10일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
공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. 대전 | 김동원 기자 won@donga.com

‘LG 토종에이스’ 우규민, 컨트롤 빚냈다

■키맨

최고구속 139km...시범경기 NC전 3이닝 무실점

NC 타선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주목받
고 있다. 김경문 NC 감독은 10일 마산 LG전에서
정규시즌 베스트 라인업을 꺼내들었다. 김중호~
박민우가 테이블세터, 나성범~에릭 테임즈~박석
민이 클린업 트리오를 맡았다.

김중호와 박민우는 지난해 87도루 201득점을 합
작한 리그에서 가장 빠른 테이블세터였다. 나성
범~테임즈~박석민은 지난해 성적 기준으로 무려
101홈런에 391타점을 올렸다. 특히 김중호부터 테
임즈까지는 모두 좌타자라. 이날 LG 선발로 등판한
잠수함투수 우규민(31·사진)에게는 몹시도 까다로
운 타선이었다. 6번으로 넘어가도 베테랑 이호준에
7번은 다시 좌타자 이종욱이었다.

그러나 우규민은 쌀쌀한 날씨 속 현란한 변화구



컨트롤로 3이닝 동안 1안타만
허용했을 뿐 볼넷 없이 삼진 4개
를 잡으며 리그 최강으로 전망
되는 NC 타선을 잠재웠다. 직구
최고 구속은 139km로 빠르지
않았다. 커브, 슬라이더, 체인지
업, 포크볼을 섞어 던지며 완벽

한 컨트롤과 완급조절을 보여줬다.

우규민 같은 언더핸드투수는 일반적으로 좌타자
에게 약하다. 그러나 이날 우규민은 좌타자 몸쪽에서
바깥쪽으로 휘는 체인지업 등 컨트롤이 수반된
변화구로 역투를 거듭했다. 1회말과 2회말 나성범
과 테임즈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고, 이호준과 김중
호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.

3이닝 동안 유일한 출루 허용은 2회말 박석민에
게 맞은 우전안타뿐이었다. LG 토종 에이스의 굳건
함을 확인한 시범경기였다.

마산 | 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박상희 회장 불명예 퇴진...아마추어야구 어디로?

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으로 10개월만에 퇴진
KBA 조직 개편 불가피...아마야구 대회 차질

한국 아마추어야구는 어디로 가는가.

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야구협회(KBA) 박상
희 회장(사진)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. 최근 협회 기
금 전용 및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으로 논란을 일으
킨 박 회장은 9일 KBA에 사표를 내면서 공식적으로
회장직에서 물러났다. 사표는 11일자로 작성했다. 이
로써 전임 이병석 회장이 물러난 뒤 지난해 5월 12일
제22대 KBA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임기(2017년
2월)를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불명예 중도퇴진
하게 됐다.

지난해 기금 과실금(이자수입) 중 3억800만원을 이
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경성비로 전용한 사
실이 드러나고,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통
해 280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 회
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
라 사고단체나 다름없는 KBA에 지원하는 주최단체
지원금을 보류하고,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부터
이달 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. 박 회장은 결국
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.

박 회장이 사퇴했지만, KBA는 더 큰 격랑 속으



로 빠져들고 있다. 개정된 국민
체육진흥법에 따라 27일까지는
KBA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
연합회(KBF)가 통합해야 하는
데, KBA 조직을 정비하고 통합
회장 후보를 추대하기에는 시일이
촉박하다.

KBA는 일단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
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
다. 그러나 이를 놓고도 아마야구계는 물밑에서 또 한
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. KBA 정관
상 선임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순리지만, 선
임인 김종업 부회장은 전임 이병석 회장이 물러난 뒤
직무대행을 수행하다 지난해 KBA 회장 선거에서 박
회장과 격돌했다. 그 과정에서 양측 계파간 감정의 골
은 깊어졌다. 현 KBA 수뇌부는 그래서 김은영 부회
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작업을 진행할 듯하다. 또
비대위 구성, 통합회장 추천 과정에서 ‘자기 사람 심
기’라는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.

한국 아마야구를 관장하는 KBA는 지금 재정이 고
갈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. 아
마야구 발전은 뒷전이고 자리와 권력에만 연연하는
어른들의 이권투구 난맥상으로 인해 한국야구의 미
래가 흔들리고 있다.

이재국 기자

■빅마우스

●캄바람이 불더라. (조종규 KBO 경기감독관, 수원
kt-넥센전의 한파 취소 이유를 설명하며)

●좋겠다. (kt 조범현 감독, LG의 젊은 선수들이 성
장했다는 말에)

●27세, 25세, 스물 넷... (LG 양상문 감독, 훈련 중
인 선수들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며 젊은 선수들

을 올해 잠실구장에서 많이 보고 싶다며)

●토요일 울산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(LG 류제국, 시
범경기 첫 등판이 12일 울산 롯데전이라며)

●LA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, 다시 인천에
서 창원까지 버스로 4시간30분 왔어요. 그래서 더 뛰어
야 해요. (NC 나성범,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랜 시간
에 걸쳐 돌아왔기 때문에 빠른 적응을 위해 더 많이
훈련한다며)

정착한
대한민국을 여는
정부3.0

렛츠런파크

馬王의
금빛 레이스
최고의 영예를 바치다

당대 최강 명마들이 펼치는 거침없는 질주,
터질 듯 심장을 뛰흔드는 레이스가 시작된다.
진정한 馬王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순간,
폭발적인 馬力은 극한의 스피드를 선사할 것이다.

LetsRun PARKSEOUL | 제7회 스포츠동아배경주 | 2016. 3. 13.(일) 제8경주

※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,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